

어느 목소시절(牧使時節)에 고성목이¹⁾가 동까운(東果園)은 안쓰랑(內舍廊) 불컨턴²⁾ 네스랑(內舍廊), 섯가운(西果園) 동까운(東果園) 섯베남드르(西梨木坪)³⁾ 동베남드르 각천⁴⁾ 칠백실과밭(七百實果田)을 직⁵⁾고⁶⁾ 쓰또(使道) 원님에게 진상(進上) 바치곡 처하부재(天下富者)로 사는다. 호련웃이⁶⁾ 원님(員-)이 출상(出使)응 허여 술련(歷)돌게 뛰니, 목소(牧使)님이 맹령(命令)을 허⁷⁾워.
 『이제 흔적(痕蹟)만 신⁷⁾ 질(路)을 혼날 혼시(一日一時)로 다끄워,⁸⁾ 담벳씨(煙草種)로 석자 보토(三尺補土)에[다 대잣넓이](五尺幅) 놓고 그 날 시에 질을 빼라.』

호니, 고성목은 수십⁸⁾년 차에 그 날 처⁹⁾ 몽우(夢)네 엄뜩허연⁹⁾ 보니, 대작넓이(五尺幅)에 석자보듯질(三尺補土路)이 뛰여시니. 나갈 보난 풍우대작(風雨大作) 천변(天變)으로 청몰래(青砂) 백몰래(白砂)가 모여다 질(路)이 뛰였더라.

모소님이 지나오라¹⁰⁾

『고성목은 인간(人間)이 아니라. 나 골은 대로¹¹⁾ 장장보토(長長補土)가 뛰여시니, 너는 인간이 아니라.』

치사(致謝) 허여두고 떠나분다,¹²⁾ 고성목 생각⁹⁾워

『나가 이대로 시민¹³⁾ 또로 무신¹⁴⁾ 위염(危險) 혼 일이 당할까. 이만¹⁵⁾ 혼 일도 천이 감동하여 나를 도와준 건디. 다시 일이 일어나면 어떻¹⁵⁾ 살아나이. 날랑 간곳¹⁶⁾이 폐해 불저.』

하고, 정월(正月) 초⁹⁾를날(初一日) 남신(木) 신음냥 산방(山房山)¹⁶⁾데레 치긋어오르멍

『주우¹⁷⁾ 주우는 삼방덱이¹⁸⁾네 주어라.』

흐멍 올라부니 고성목인 간 곳 엉어분다.¹⁹⁾

1) 인명임과 동시에 이 당의 신면(神名)임.

2) 화순리(和順里)의 지명. 불탄집터의 뜻.

3) 화순리의 지명.

4) 갖가지.

5) 지키고.

6) 『술연(忽然)』이. 갑자기의 뜻.

7) 있는.

8) 닦되(補修).

9) 깜짝 놀라는 모양.

10) 지나와.

11) 말한 대로.

12) 떠나버렸는데.

13) 있으면.

14) 무슨.

15) 어떻게.

16)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산.

17) 미상.

18) 산방덕(山房德). 산방산(山房山)의 굴인 산방굴의 신이라 함. 미모의 산방덕이가 산방산에서 자출(自出)하여 고승(高升)과 동거 중, 관의 욕탈(慾奪)에 절개를 지키고 산방굴에 들어가 화석(化石)이 됐다는 전설이 있음.

19) 없애버린다.

그 뒤, 성집(成氏) 지집(池氏) 양집(梁氏) 박집(朴氏) 네 성친(四姓親)이 화순(和順梨)을 살게 됨
여, 옛문세(古文書)를 살펴보고 고성목이가 살아난 터로 당주²⁰⁾를 모사²¹⁾ 생일(生日) 대소상(大小
祥) 흥(亨) 목으로²²⁾ 모든 단골(丹骨)이 모아서 정월(正月) 초(初) 흥(亨) 팔월(八月) 보름날(望
日) 토주지관(土主地官) 본향(本鄉)으로 우망(爲望) 흥(亨) 신당(神堂)입니다.

— 安德面 和順梨 男巫 許斗平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770-772.

20) 집안에 수호신을 모신 곳.

21) 모시어.

22) 목으로.